

# ‘교과·수능 4등급’에 논술 자신없다면... ‘적성고사’가 답

〈학생부〉

## 12개 수도권 대학 4800명 선발

한성대·서경대·한신대·수원대 등 가천대 1074명... 가장 많이 뽑아 답 추론·시간 안배 훈련 이뤄져야

학생부 교과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등급이 각 4등급 이하이면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고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알려진 적성고사 실시 대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적성고사는 다른 전형과 비교해 대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에스티유니타스와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 적성고사는 가천대, 한성대, 서경대, 한신대 등 서울과 수도권 12개 대학에서 총 4804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전년도 4597명에서 207명 증가했다.

올해 대학별 모집인원을 보면 가천대 적성고사 선발 인원이 107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대 601명, 고려대(세종) 430명, 을지대(성남) 414명, 한성대 389명, 서경대 371명, 한국산업기술대 355



한 입시업체가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뉴스

명, 한신대 304명, 성결대 283명, 삼육대 238명 등이다.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은 학생부 60%, 적성고사 40%이다. 학생부 성적은 평택대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교과 성적 100%를 적용한다.

명목 반영비율은 학생부 성적이 높지만, 실제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 적성고사가 합격의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입시업계에서는 적성고사 전형의 경우 학생부 성적 4~5등급선까

지 합격권으로 보고 있다.

대학별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도 대략 5등급까지 적고, 이하 등급부터 등급간 점수차가 커진다. 예컨대 수원대 적성고사 전형의 교과성적 등급간 점수차는 1~5등급까지 0.5점씩이지만, 이하 등급부터 등급 간 점수 차를 크게 두고 있다. 상위등급의 등급간 점수차는 수원대 적성고사 한 문항당 배점(3~4점)을 고려하면 1등급과 5등급간 점수 차(3점)가 적성고사 한 문항 점수와 같아

적성고사 한 문항으로 학생부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셈이다.

에스티유니타스 유성룡 교육연구소장(겸 커넥츠 스카이에듀 진학연구소장)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6등급 이하 수험생은 적성고사로 낮은 학생부 성적을 얼마만큼 만회할 자신이 있는지 냉철히 따져보고 지원 여부를 정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적성고사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고려대(세종)와 흥익대(세종)에서만 적용하고 나머지 대학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성고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논술이나 심층면접에 비해 대비가 어렵지 않고, 특히 수능시험과 형태가 유사하나 더 쉽게(수능의 70~80% 수준 예상) 출제돼 수능 시험 준비와 함께 대비할 수 있다. 대비가 수월한 만큼 경쟁률이 높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출제 경향과 기출·예상 문제 등을 숙지해 대비하는게 좋다. 또 많은 분량의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정확히 많이 푸는 연습이 중요하다.

수능과 유사하지만 적성고사 방식의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

다. 예컨대, 수능시험 국어 영역에서 시 문제가 제시된다면 시의 정체적 의미와 배경 등을 파악해 풀어야 하지만, 적성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주어진 시를 읽고 핵심적인 단어 1,2개만을 찾아 답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또 수능 수학 영역의 경우 고교 수학의 여러 주제들이 섞인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지만, 적성고사 수학 영역에서는 중·고교 교과서 수준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된다.

답을 추론하는 방식과 시간 안배에도 유의해야 한다. 유성룡 소장은 “그 동안 적성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상당수 수험생의 실패 원인은 무작정 문제만 풀었지, 답을 추론하는 방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시간 안배에 실패한 데서 찾을 수 있다”며 “따라서 적성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답을 추론하는 훈련과 시간 안배 훈련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입 적성고사는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를 때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중간고사 수고했어요” 유지상 광운대 총장, 외국인유학생에 간식나눔

광운대학교는 유지상 총장이 지난 17일 오후 광운대 국제교육원 앞에서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A+ 간식 나눔 이벤트’에 참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적 문제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 광운대에는 현재 독일,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베트남, 대만, 일본 등에서 온 6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광운대 유지상 총장과 교수들이 17일 오후 광운대 국제교육원 앞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광운대

## 인천대,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육성 나서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와이앤아처와 업무협약

인천대학교는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가 스포츠산업 창업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와이앤아처와 인천지역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와 창업 엑셀러레이터로 지정받은 스포츠산업 창업인력양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포츠산업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게 된다.

홍진배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장은 “두 기관의 협력은 인천의 역량 있는



인천대학교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7일 스포츠산업 창업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와이앤아처(주)와 인천지역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대

스포츠산업 창업기업에게 투자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서술·논술형 비중 확대... 중·고 교사 직무연수

### 서울시교육청

‘학생평가 매세토 아카데미’  
문항 개발·채점방법 등 연수

올해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서술·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비중이 증가하는데 따른 교사 대상 직무 연수가 본격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중·고교 교사 대상 직무 연수 프로그램인 ‘2019학년도 학생평가 매세토(매월 셋째주 토요일) 아

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직무 연수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5과목에 대한 서·논술형평가, PBL(문제기반학습) 수업 및 평가, 토론·실습을 적용한 수업과 평가, 학기 단위 평가계획 작성, 지필평가 문항 분석·개발 등 학생평가와 관련된 주제로, 과목별 20명씩 총 100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4월 주제는 ‘서·논술형 문항, 어떻게 개발하고 채점해야 할까’로 과목별로

송곡중(국어), 중앙대부속중(수학), 배문중(사회), 한울중(과학), 구암중(영어)에서 운영된다.

이번 직무 연수는 서울시교육청의 과정 중심 평가 확대와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평가 지침으로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에서의 서·논술형평가 합 50% 이상을 실시하고, 매 정기고사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20% 이상을 권고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 가장 많이 쓰는 SNS는 페북>유튜브>인스타 順

10대 41% 하루 3시간 이상 이용

성인남녀가 많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이었고, 10대의 SNS 이용량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알바콜과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4381명을 대상으로 SNS 사용실태에 대해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59.1%,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유튜브’(55.5%), ‘인스타그램’(54.9%)이 근소한 차이로 2,3위에 올랐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은 ‘하루 30분~1시간 이내’(29.2%)가 가장 많았으나, 10대의 무려 41.5%는 ‘하루 3시간보다 많이’를 선택해 전체 평균 시간의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고발

유해성 보고서 은폐 혐의

SK케미칼이 위기에 몰렸다. 가습기 살균제 개발과정에서 유해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 대표가 구속된데 이어 환경부로부터 추가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SK케미칼이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것을 고발 사유로 들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 11시30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6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개발·출시와 사업 인수 및 (제품)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

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가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 제품 출시 전에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8일에는 환경부가 SK케미칼에 대한 같은 날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이 지난 해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과정에서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